

<p>믿음 지혜 실천</p>	<h1>BUDDHANARA</h1>	<p>FAITH WISDOM ACTION</p>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매달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및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시 11시 전법기도 법회 및 교리탐구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매달 둘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오후 2시
 George Pierce Community Center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덕망 있고 통찰력 있는 사람,
 완성의 길 정법을 따르는 사람,
 언행이 진실한 사람,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
 세상을 사랑한다네.

He who has virtue and vision, who follows DHAMMA, the Path of Perfection,
 whose are truth, and does the work to be done – the world loves such a man.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8 년은 부처님 말씀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대한 불교 조계종 종정예하, 31 일 원로 12 명에 ‘대종사 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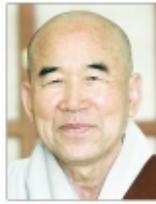
대종사 법계를 품수받는 스님들



도문스님



혜정스님



지종스님



선진스님



명선스님



무진장스님



월서스님



혜승스님



정무스님



고우스님



현해스님



법홍스님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에 대한 법계 품서식이 오는 31 일 오전 10 시 해인총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다. 이번 대종사 품서식은 지난 2004 년 5 월 석주, 지종, 성수스님 등 20 명 스님들이 받은 이후 4 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에 대종사 법계를 품수받는 스님은 도문, 혜정, 지종(통도사), 선진, 명선, 무진장, 월서, 혜승, 정무, 고우, 현해, 법홍스님 등 모두 12 명 원로의원 스님이다. 지난 5 월 제 31 차 원로회의에서 10 명 스님들이 특별전형 심사를 통과했고, 지난 17 일 32 차 원로회의에서 선진, 혜정스님 역시 통과되면서 법계를 수지하게 됐다.

법전 종정예하가 법계를 수여하게 되는 품서식은 명종으로 시작해, 고불문과 현화, 서원, 법계증 수여, 청법계, 종정예하 법어, 가사 수여, 발원문 등 순서로 여법하고 장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대종사 법계는...

종단 최고 법계로서 스님들의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며 종단 위계 서열의 기본이다. 법계법 제 9 조에 따르면 종사 법계 수지자로서 승랍 40 년 이상 스님이면 대종사를 품서 받을 수 있다. 대종사 품서의 경우는 승가고시가 아닌 특별전형으로 이뤄지며, 중앙중회의 동의와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스님 75 명 중덕·정덕법계 ‘품서’ 수행과 전법 매진 ‘서원’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위대하고 올바른 길임을 선포하며, 시방세계를 부처님의 도량으로 장엄하겠습니다.” 지난 17 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열린 제 6 회 3 급승가고시 및 연수의 법계품서식에서 중덕(中德)과 정덕(定德) 법계를 품수받은 75 명의 스님들은 발원문을 낭독하며 더욱 강건하게 수행과 전법에 매진할 것을 서원했다. 제 6 회 3 급승가고시 및 연수는 서류전형 탈락 및 미응시 11 명을 제외한 96 명의 스님이 입교한 뒤 1 차 논술, 2 차 수행평가 갈마, 3 차 연수교육평가를 거쳐 비구 52 명, 비구니 23 명 등 총 75 명의 스님이 중덕 및 정덕 법계를 품서 받았다. 법계를 품서받은 스님들은 말사 주지 및 교구본사 국장 소임을 맡을 수 있고, 도제(상좌)를 둘 수 있는 사승(師僧)의 권한을 얻게 됐다.

이날 법계품서식은 명종 5 타를 시작으로 개식, 삼귀의, 반야심경, 치사, 법어, 서원 시달, 가사 수여, 법계증 수여, 발원문 낭독, 사홍서원, 폐식 등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법전 종정예하는 법계위원장 보성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그동안 꾸준한 정진으로 남다른 지혜와 기틀로 이 자리를 얻었으니 안으로는 법시(法施)의 문을 넓혀서 모든 중생이 자기명근(自己命根)을 깨달아 각지(覺地)에 오르게 해야 할 것이요, 밖으로는 자시(慈施)의 문을 열어서 일체중생이 교화의 이로움을 입어서 본분중지를 드러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총무부장 원학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여러분들은 오늘 품서식을 통해 종단의 책임있는 하담여래(荷擔如來)의 역할을 맡게 됐다”면서 “부여되는 책임과 권한이 크고 기대 또한 적지 않은 만큼 우리 종단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역군이 돼 달라”고 격려했다. 승납 10 년차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지난 9 일부터 17 일까지 김천 직지사서 열린 제 6 회 3 급승가고시 및 연수는

5 과목의 논술시험에 이어 사승론, 사찰회계, 선강의, 문화재관리 등을 주제로 한 연수교육과 회향식 및 법계품서식 등으로 진행됐다.

“신도교육, 평생교육 차원으로 확대” ; 포교연구실, 17 일 포교정책워크숍서 논의

새로운 조계종 신도상을 정립하기 위한 포교정책워크숍이 지난 17 일 양주 육지장사에서 개최됐다. 포교원 포교연구실 주최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도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포교연구실은 최근 잇따른 연찬회를 통해 현행 신도교육 체계와 조직관리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조계종 신도 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수현스님(포교연구실 상임연구원)은 “신도들에 대한 교육이 단순히 교리중심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며 다양한 실행활동과 사찰 내에서의 여러 활동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도교육의 지평이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의 발판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현스님은 이를 위해 정기 법회 참석 및 사찰 봉사활동의 의무화, 생활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교양과목의 확충, 불교대학원 과정의 내실화를 통한 전문성 있는 신도 양성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중앙종회의원 주경스님과 정범스님, 용주사 기획국장 남전스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교리 공부 : 효과적인 수행의 요건이 있습니까?

문: 제가불자로서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수행을 해야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행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효과적인 수행의 요건이 있습니까?

정범대로 수행하는게 가장 빨라 ; 좋은 도량과 벗과 선지식이 중요

답: 가장 좋은 수행은 아무래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방법이 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지요. 그것은 좋은 도량에서 좋은 도반과 더불어 훌륭한 선지식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좋은 도량이란 자기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영험도량은 기도를 하면서 효험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곳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도량이란 정범에 의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회가 준비된 곳입니다. 수행이 무르익은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서건 자기 공부를 잘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법회를 통해서 가장 빨리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법하게 법회가 진행되는 사찰을 원찰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하여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 힘을 일상생활로 연장해서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수행이 될 것입니다. 가끔 성지순례나 사찰순례를 하는 것은 신심을 북돋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평생을 이질 저절로 큰 행사나 찾아다니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행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좋은 도반은 참 중요합니다. 삼밭에서 삼대사이에 있는 쭉은 곧게 자라고, 큰 나무를 의지한 덩굴은 아주 높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쭉과 덩굴이 곧은 삼대와 큰 나무의 덕을 본 것이지요. 좋은 도반이란 이렇게 나를 곧게 또는 높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만약에 주위에 좋은 도반이 없다면 무소의 빨처럼 혼자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가능한 좋은 도반을 찾아 서로 의지하며 수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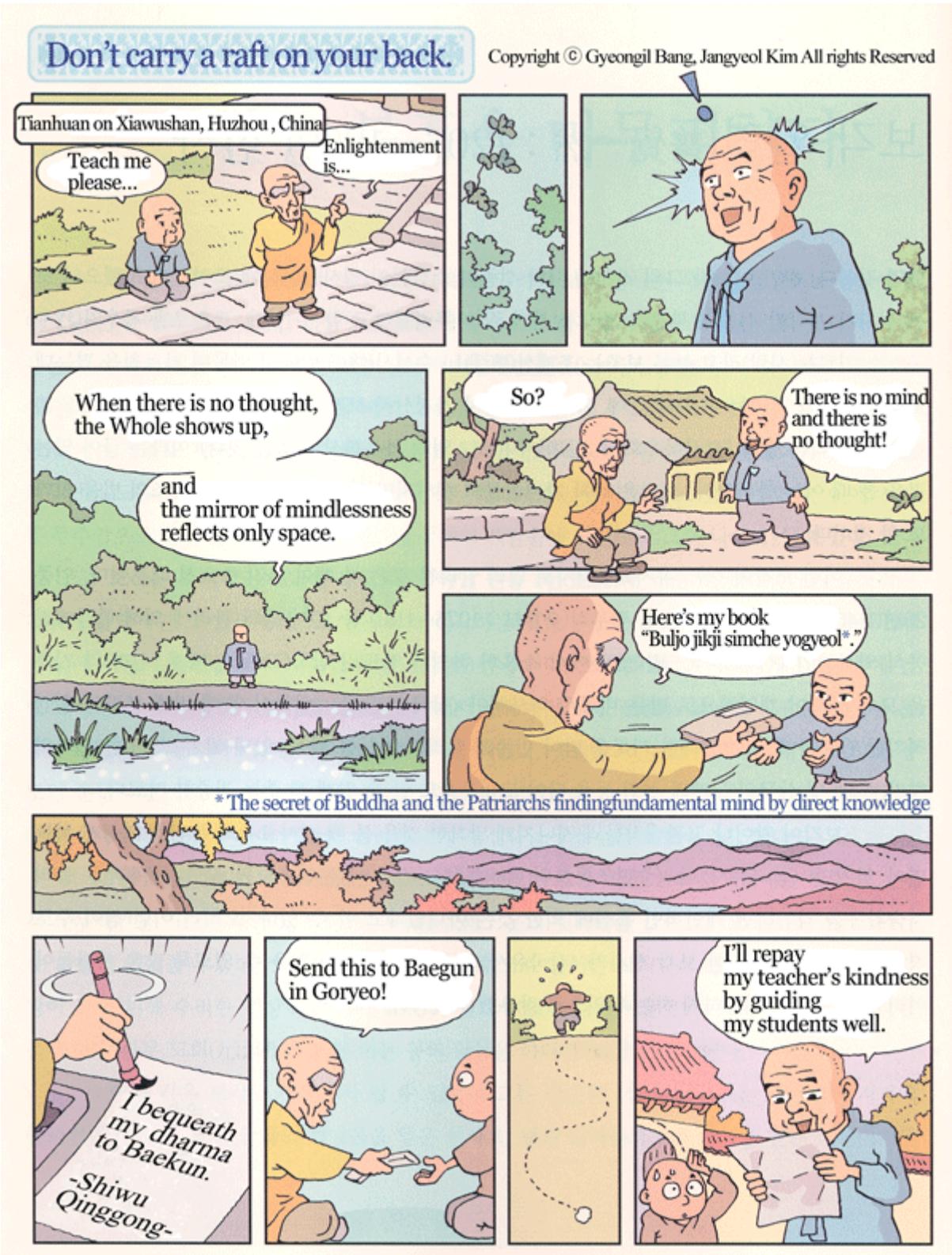
좋은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지식은 수행자의 심리나 수행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파악한 상태를 그대로 알게 하여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부하려는 사람들의 심리 중에도 어느 정도의 아만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당하거나 자기의 자만심을 충족시켜주는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떠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지도자도 때로는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며 떠나니 우선 그들을 머물게 하자. 그러려면 그들에게 공부를 잘 했다고 임시로 인정해 주자’는 방식으로 행동에 옮기는 이가 생깁니다. 이 경우처럼 지도자가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일지라도,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음을 인정받았다’는 식으로 착각해버리므로 큰 병통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어찌면 의도한 것과는 반대로 아만심만 더 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정액을 회비로 내면 며칠 만에 깨달았다고 인정해주는 이상한 단체들도 많이 생겼다고 하니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차분히 살피고 또 살펴보면, 결국 자기 욕심으로 이런 사기를 당하게 됨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특별히 손쉽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법한 도량에서 맑은 도반들과 좋은 스승의 꾸중을 달게 받으며 수행함이 최상의 길입니다.

- 불교

신문에서 발췌 -



대자대비로 중생을 제도하다
신으로부터 인간을 해방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나오심은
마치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남이다.

- <선가귀감 2>

주해(註解) : 부처님은 석가여래이고, 조사는 가섭존자이다. 세상에 나오신다는 것은 대자대비를 토대로 중생을 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 물건'으로 따져본다면, 사람마다 본래면목이 저절로 원만히 이루어졌는데 어찌 남이 연지 찍고 분 발라 주기를 기다릴 것인가. 그러므로 세상에 나오심은 물결이 일어남이다. <허공장경>에서 "문자도 마의 업이요, 이름과 형상도 마의 업이요, 부처님의 말씀까지도 마의 업이다"라고 한 것이 이 뜻이다. 본분을 바로 들어 보일 때는 부처님이나 조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말함이다.

송(頌) : 하늘과 땅이 빛을 잃고, 해와 달도 광채를 잃었구나.

사족(蛇足) : '누가 그대를 묶었는가?' 아무도 나를 묶은 바가 없다. 하지만 스스로 자승자박에 걸려있기에 해탈을 구한다. 본래 면목자리는 연지 찍고 분 바를 필요가 없다. 이미 완전무결한 것이다. 지금 이 모습도 알고 보면 누구나 있는 그대로 그토록 자신이 원했던 모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몸에 대한 콤플렉스, 돈에 대한 콤플렉스, 신에 대한 콤플렉스로부터.

부처님은 인간을 신(神)으로부터 해방시킨 분이다. 또한 돈으로부터 해방시킨 분이다.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기껏해야 신의 종이거나 돈의 노예로서 만족하고 살아야 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당당히 선언하셨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라고. 신이나 돈이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신이나 돈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외부의 연들을 무시할 필요도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돈도 자신을 잘 써주는 이에게 모인다. 먼저 웃다보면 웃을 일이 생겨난다.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참다운 방생(放生)이며 인과법칙을 현실에서 살려나가는 방법이다.

삶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업생(業生)과 원생(願生)이다. 업생이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물결에 휩쓸려 살다 가는 삶이다. 원생이란 스스로의 삶을 갈무리해 도도한 업의 물결을 건너가는 것이다. 나도 건너고 남도 건네주는 것이다. 중생은 업생을 살고, 보살은 원생을 산다.

그러므로 보살의 수행은 공(空)으로 향해가는 수행이 아니라, 공(空)으로부터 출발하는 수행이다.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으며, 고정된 '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중생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연민의 서원을 발하여야 한다.

보살은 이처럼 자신을 방생하고 남도 방생한다. 스스로의 생명을 해방시키고 다른 생명을 해방시키는 것, 진정 바람도 없는데 물결을 일으킴이 아니겠는가?

- 월호스님, 불교신문에서 발췌 -

보왕삼매론을 통해서 어려운 현실과 자신을 이겨내는 지혜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선행 경제 지표라 할 수 있는 다우 존스가 만 포인트 아래로 내려갔다. 각 은행들의 자금난의 심화, 주택 시장의 침체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들이 꼭 신도님들의 입을 통하지 않더라도 피부로 느끼고 있어 이곳에 살고 있는 교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곳에 살고 있는 승려의 한 사람이기 이전에 한국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민 경제의 붕괴”, “환율 1300 원”, “식품 펠라민 사태” “유명 연예인의 자살” 등 좋은 일보다 걱정스러운 일들이 세계 안팎에서 또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항상 대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겠지만 고통과 시련을 극복해 내야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때도 만나게 된다.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 전, 공중투하 전에 비교할 만큼 거친 삶에 내던져진 자기자신의 절박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렇게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것을 이겨내는 힘을 불교에서는 “보왕 삼매론”에 10 가지의 가르침으로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알려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어떠한 마음자세를 가질지, 또한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큰 가르침과 지혜로운 교훈으로 주고 있다.

오늘은 보왕삼매론 중에서 3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받아들일 때 고통이지 고통도 수행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고통일 수 없고 어느 순간 깨달음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수행의 힘이고 신앙의 힘이라 할 수 있다.

보왕삼매론의 두번째의 가르침을 보면;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살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스러운 마음이 생기기 쉬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 각자가 다른 숙제를 갖고 이세상에 오지 않나 생각한다. 각자가 풀어야 할 그 숙제는 다른 이들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숙제들인데 그래도 이곳은 3 악도 (지옥, 아귀, 축생)는 면했지만 그래도 고통이 있는 인간계라 할 수 있는 사바 세계이다. 6 도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아귀, 지옥) 중에서 인간계는 중간계 위쪽에 있는 것이 인간계이니 그래도 참고 견딜만한 세상이 아닌가 합니다.

보왕삼매론의 다섯번째 가르침을 보면;

일을 피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어려움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일을 하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누가 그래서 인생은 장애물 경주라고도 표현 했던 것 같다.

일을 하다 장애물을 만났어도 좌절하지 말고 장애물이 나를 더욱 키우게 되는 에너지원이라 생각하고 정진했으면 한다.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마다 이것이 곧 선지식들을 만나는 기회이자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힘이 나지 않을까?

또한 그러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해 봄 직하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쉽게 성취가 된다면 스스로가 고만해져서 나중에 자기 자신만 파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도 고통의 시간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그래서 계획한 일이 일사천리로 쉽게 성취가 된다면 좋아하기만 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며 자신을 낮추어야 하겠다.

여덟번째 가르침을 보면;

덕을 베풀면서 과보를 바라지 마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좋은 일을 하면서 결과를 바라는 마음은 장삿속이다. 처음 미국 땅에 발을 내 딛었을 때 아는 사람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미국 풍습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공항에 내렸을 때에는 모두가 경험했듯이 막막함 그 자체이다. 그때에 이민을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지만 처음이든 나중에 되었든 아니면 그 중간이 되었든 베푸는 데에 요구 조건을 붙인다면 그가 베푼 덕을 순수하지 않다. 내가 상대에게 베푼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베풀어 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계는 윤회 권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모습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 한다. 고통만 존재한다는 삼악도라 하는 지옥세계의 고통도, 아귀세계와 같은 배고픈 고통도 또한 축생세계와 같은 무지의 고통도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사바 세계에서 만날 수 있다 한다.

하지만 이곳은 고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도 함께 존재 한다. 즉 즐거움과 기쁨만이 존재한다는

극락세계가 이곳에 있고, 신들의 세계라 하는 수라세계가 또한 이곳에 존재 한다.

육도윤회가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세계에 존재한다면 이곳은 참으로 마음공부하기 좋은 학교이며 우리들은 매일 매일이 배움의 연속인 학생들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美불국사 선각스님, 지역 고교 신입생 법회 열어

‘부처님은 누구인가’ 등 주제로…한국 불교 소개 DVD 도 상영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주지 선각스님은 지난 10 월 2 일 세인트루이스 명문 사립 고등학교인 MICDS(Mary Institute and St. Louis Country Day School)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는 신입생과 교사 등 125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선각스님은 ‘부처님은 누구인가’와 ‘사성제’, ‘팔정도’ 등 불교의 기본 교리를 주제로 법문을 했다. 또 법문에 이어 참가자들은 조계종에서 제작한 DVD ‘Korean Buddhism’을 상영했다.

선각스님은 “현지 학생들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미래의 불자가 되리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포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불교 신문 엄태규 기자 -

e 세상의 불서 한곳에서 ‘클릭’ 중앙기록관 홈페이지 개설의 의미

불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교서적을 통해 해당종교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도 늘어나고 있지만 일반 서점에서 원하는 불교서적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불교서적 코너는 구석진 곳에 있기 일쭤며, 그나마도 장서량이 풍부하지 못해 발걸음을 돌린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조계종 중앙기록관이 개설한 홈페이지(<http://lib.buddhism.or.kr>)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한 불자와 일반인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록관이 보유한 다양한 서적을 제 입맛에 맞게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기록관에 없더라도 짧은 검색어 입력만으로도 동국대나 중앙승가대 등 관련기관이 소장한 서적을 찾아볼 수 있어 여러 사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자료를 찾았던 고단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홈페이지 개통이 가진 의미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중앙기록관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졌다는 데 방점을 찍을 수 있다. 기존에 생산된 각종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기능에서 뛰어 넘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불교중앙도서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돼, 불법 흥포와 포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기록관은 홈페이지 오픈에 이어 제 2 의 도약을 위한 갖가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사찰별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그것이다. 기록관에 들어오는 장서 가운데 겹치는 서적을 골라 지원을 원하는 사찰에 배포함으로써 도서관 건립을 돕는다는 것이다. 도서 보내기 캠페인도 함께 전개해 기록관뿐 아니라 누구나 사찰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님들의 자료를 수집해 집대성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나 흩어져 있어 소멸하기 쉬운 다채로운 자료들을 모아 디지털화해 한국불교의 역사를 세우는데 일조하겠다는 구상이다. 근현대 고승기록, 역대 종정스님, 총무원장스님 기록물, 제방 스님들의 관련 자료 등이 이에 속한다. 본, 말사별로 갖고 있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해 지원한다는 일정도 갖고 있다.

궁극적으로 각종 기록물들을 잘 관리, 보존해 종단과 한국불교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후세에 전승하겠다는 미래 원력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4 년 개관한 중앙기록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37 만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소장하고 있는 불교서적은 2 만 5000 여 권 정도로,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기에는 미진한 상황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법회소식 NEWS

-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 과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법회 장소는 George Pierce Community Center 에 있는 Meeting Room 입니다. 주소는 55 Buford Hwy, Suwanee, GA 30024 이고, Center 연락처는 (404) 510-6957, 또는 (314)993-0185 입니다.
- 11 월 13 일에 St. Louis 지역에 있는 Community Center 에서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을 초청해서 오전 9 시 30 분에서 12 시까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삶과 죽음”에 관한 법회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 10 월 셋째주 일요일 (10 월 19 일) 불국사 야외 법회 및 소풍이 일리노이 Grafton 있는 Eckert’s Grafton Farm 에서 신도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즐거운 화합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히도 이날은 날씨도 화창한 가운데 준비해간 도시락도 먹고 사과와 호박도 따면서 가을의 정취도 한껏 느끼며 신도님들과 화합도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참석해주신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미국에서는 매년 약 130% 이상씩 미국 현지인 불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부처님을 닮고자 합니다. 불국사 선각스님이 10 월 2 일 목요일 오전 9 시 40 분부터 Ladue 에 있는 MICDS (Mary Institute and St. Louis Country Day School) 강당에서 이 학교 학생 125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회가 성황리에 있었습니다. 이날 성공적인 법회를 위해 이수연 불자님의 자원봉사 감사 드립니다. 이번엔 만나는 MICDS 학교 청소년들을 멀지않은 미래에 불자로 다시금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 현재 불국사 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류정아 불자님이 “한중일 국제 학술 세미나”에서 “땀”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논문 발표후에 개회측으로부터 받은 10 만원은 애틀랜타 법회를 위해 보시해 주셨습니다.

10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01 번 경신생 정자영, 102 번 임술생 정태욱, 133 번 진양 후인 정상모 영가, 134 번 진주 유인 황수강 영가, 222 번 병인생 유병화, 223 번 정해생 이주영, 224 번 임진생 박찬희, 225 번 계묘생 박인환, 226 번 을사생 유현숙, 227 번 갑신생 박민지, 228 번 수자 영가 304 번 경술생 정현식, 305 번 신해생 배연문, 306 번 무인생 정민규, 307 번 경진생 정민혁, 367 번 정미생 이천홍, 368 번 경술생 장교선, 369 번 정축생 이진석, 370 번 신사생 이상민, 371 번 기사생 최연정, 376 번 경자생 김홍일, 377 번 천정화, 378 번 경오생 김동호, 379 번 임신생 김단희, 380 번 기해생 광조스님, 381 번 기사생 임유순, 533 번 진주후인 강대학 영가, 534 번 기사생 조순옥, 535 번 은진후인 송호창 영가, 536 번 정축생 권효영, 537 번 경자생 차용재, 538 번 기해생 유문숙, 539 번 신미생 차상욱, 540 번 무인생 차상배, 543 번 병신생 조문석, 544 번 신유생 박준하, 545 번 임술생 박준형.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10 월 한 평 불사 동참자: 무술생 최문선.

2009 년 달력 시주 동참자 : 김일태, 법륜월 장지영, 무량화 문봉순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한국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회장님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